

2026년 4월 2일 제 51호

연구위원 안혜영  
연구위원 황규환  
연구위원 김종현

# HIF 월간 산업 이슈(4월)

## Monthly Industrial Issue

### 산업별 주요 이슈

#### 석유화학 **벼랑 끝 석유화학, 중동發 충격까지 더해져 ‘퍼펙트 스톰’에 직면**

-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 사태와 호르무즈 봉쇄發 나프타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에 따른 원가부담과 생산차질로 공급 불가항력 선언 및 감산 등 비상상황 돌입
- 이번 충격이 수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수입선 다변화 등의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가능성도 존재

#### 건설업 **미국-이란 충돌 장기화시 중동 사업장의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

- 미국-이란 전쟁이 홍해 인근 국가로 확산되면서 총 12건, 30.5조원 규모의 중동 지역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실 발생 우려도 확대
- 직접적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훼손에 따른 자재 이송 지연 및 공기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부각될 것으로 우려

#### 해운 **중동 사태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보다 원유 공급망 불안에 주목**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당 지역의 선박 통항량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유가 및 해상운임 급등
- 해운사의 경우 보험료·연료비 등 비용 증가 및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인해 운임 상승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공급망 정상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산업 이슈

## 석유화학

벼랑 끝 석유화학, 중동發 충격까지 더해져 '퍼펙트 스톰'에 직면

## 건설업

미국-이란 충돌 장기화시 중동 사업장의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

## 해운

중동 사태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보다 원유 공급망 불안에 주목

## C20. 석유화학

# 벼랑 끝 석유화학, 중동發 충격까지 더해져 ‘퍼펙트 스톰’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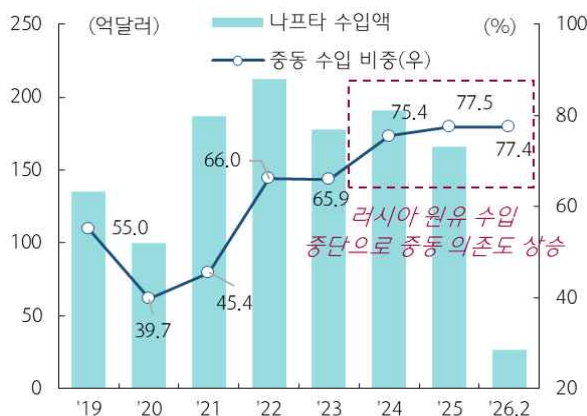
연구위원 안혜영

※ Summary :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로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원가 부담 확대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나프타 공급 부족 상황까지 겹쳐 기업들은 공급 불가행력을 선언하거나 감산 등 비상 상황에 돌입 중. 현재 국내 나프타 비축량은 2~3주 분량에 불과해 현 상황 지속 시 생산차질이 본격화 될 전망이며 이 충격은 수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 이에 정부가 나프타 수출 제한, 수입선 다변화 등의 조치로 충격 최소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가능성도 존재

### ■ 중동 사태와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나프타 가격 상승으로 석화 업계의 원가 부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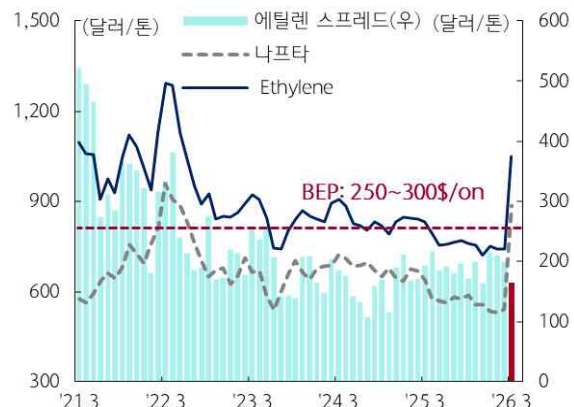
-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도 전월비 40% 이상 급등하면서 석유화학 기업들의 원가 부담 가중
  - 국제유가(Dubai, \$/bbl): 68.5(2월)→129.1(3월)/ 나프타(\$/ton): 591.2(2월) →801.7(3월)
- 이는 국내 원유 및 나프타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및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데 기인
  - 국내 나프타 공급은 정유사 생산이 60%, 수입이 40%를 차지하며 수입 물량 중 77%가 중동산
  - 중동 나프타 수입 국가별 의존도(\*25년 기준): UAE 23.7%, 카타르 12.6%, 쿠웨이트 8.8%, 오만 7.2%
-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나프타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나, 석유화학 전방 산업의 업황 감안 시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온전히 전가할 수 없어 스프레드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석유화학 기업들의 추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전망

그림1 | 국내 나프타 수입액 및 중동 수입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그림2 | 에틸렌 스프레드 추이



자료 : Korea PDS

## ■ 나프타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발생 시 전방산업으로 연쇄 충격 불가피

- 나프타 가격 급등 영향뿐만 아니라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며 주요 석유 화학 기업들은 가동을 조정 및 일부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등 비상상황에 돌입
  - 여천NCC는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은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 중
- 현재까지는 보유 재고를 통해 버티고 있지만 현재 국내 나프타 비축량이 2~3주 분량에 불과해 공급차질이 지속될 경우 4월 중순 이후 석유화학 생산 차질이 본격화 될 전망
  - 나프타는 장기보관이 어렵고, 원유로부터 생산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비축량을 2~3주 수준으로 유지
- 최근 LG화학이 대체 공급선으로 러시아산 나프타 2.7만 톤(약 3일치)를 도입하는데 성공했으나, 추가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
  - 미국은 유가 급등 억제에 위해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해 한시적(3.12~4.11, 기선적 대상) 판매를 허용
- 석유화학 제품이 자동차, 건설, 섬유, 포장재, 전자제품 소재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원료로 투입되는 만큼 생산 차질이 현실화 될 경우 전방산업으로 충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실제 석유화학 생산량을 조절하자 비닐, 플라스틱을 시작으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

## ■ 정부의 나프타 안정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충격으로 구조조정은 가속화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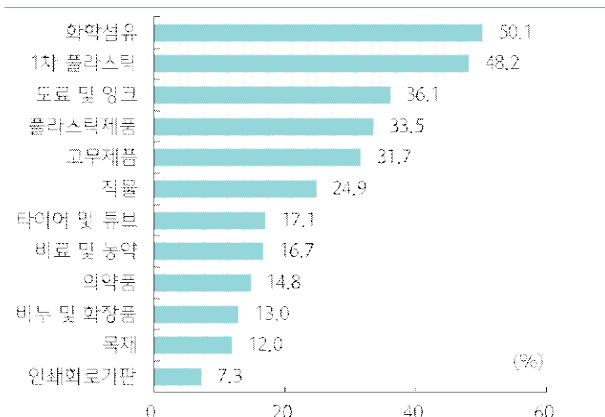
- 이에 정부는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통제, 수급 관리 강화, 수입 다변화 비용 지원(상승분의 50% 보조) 등의 안정화 조치로 충격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나 한계도 존재
  - 나프타 수출은 국내 생산의 10% 수준에 그쳐 수출 제한만으로는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없고 대체 수입선인 러시아산 나프타도 공급 안정성과 품질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
-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 진행이 지지부진 가운데, 나프타 공급 차질로 인해 저효율 NCC 설비부터 가동을 멈추면서 ‘옥석가리기’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석유 화학 구조 개편의 촉매로 작용하게 될 전망 

그림3 | 석유화학 제품의 산업별 투입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투입산출표, 2023년 기준

표1 | 국내 석유화학 구조조정 진행 현황

지역	참여기업	현재 상황
대산1호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일뱅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케미칼 NCC 설비 중단 후, HD현대케미칼과 통합</li> <li>• 정부, 구조개편안 승인</li> </ul>
여수1호	롯데케미칼 여천N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천NCC 설비 감축 후, DL, 롯데, 한화 합병 신설 법인 설립</li> <li>• 정부, 구조개편안 심사 중</li> </ul>
여수2호	LG화학, CS칼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개편안 논의 중</li> <li>• LG화학 2호기 가동 중단</li> </ul>
울산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개편안 논의 중</li> </ul>

자료 : 언론자료 정리

## F41. 건설업

### 미국-이란 총돌 장기화시 중동 사업장의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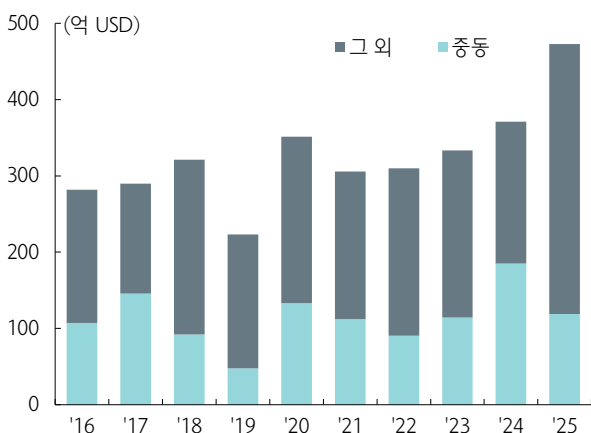
연구위원 황규완

※ Summary : 미국-이란의 총돌이 주변 홍해 인근 국가로 확대되면서 해당 지역에 건설 현장이 많은 국내 건설사에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 현 시점에서 폭격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총돌이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훼손에 따른 기자재의 이송 및 설치가 지연되면서 약속된 준공 일자를 맞추지 못해 국내 건설사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다만, 중장기 측면에서 역내 정치 불안에 따라 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전력(망), 용수 분야 등 전략적 인프라의 발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호재가 될 전망

#### ■ 홍해 인근 지역으로 전쟁이 확산되면서 해외 건설 사업장의 직·간접 피해가 우려

- 지난 2월 말에 개전된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총돌이 홍해 인근 국가로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전쟁의 여파가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중
  - 중동산 원유의 유통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
- 특히, 이란이 UAE, 카타르, 사우디 등 국내 건설사의 핵심 해외 건설 지역에도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공사 중단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고조
  - 과거 10년('16~'25년) 평균 중동 지역 건설 수주액의 비중은 35.2%
- 현재 공사 중인 중동 지역 사업장은 약 12곳, 30.5조원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사업장은 3곳, 8조원 규모로 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 될 경우 준공 시한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이 상존

그림4 | 권역별 해외 건설 수주액



자료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표2 | 중동지역 주요 프로젝트

국가	사업명	준공 예정	도금액 (조원)
이라크	WIP STF(해수처리)	'29.12	4.55
카타르	Facility E IWPP	'29.06	4.04
카타르	LNG 수출기지 탱크	'27.08	3.19
UAE	HVDC(해저송전망)	'26.11	3.17
사우디	알미랄 패키지 4	'27.05	2.82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	'26.12	2.60
이라크	신항만 1단계	'26.12	2.27

자료 : 한국기업평가

## ■ 단기 피해는 적으나 장기화될 경우 기기 조달 지연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

- 정부는 개전 이후 민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건설 현장에서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단, 해외 언론(Gas Outlook, '26.3.23)에는 국내 기업이 참여한 카타르 LNG 사업장이 전쟁 여파로 시공업체(EPC)가 대피했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시운전이 연기된 것으로 보도
- 국내 건설사들은 턴키 EPC 계약<sup>1)</sup>이 중심인 관계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항만 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기자재 이송 지연 및 비용 증가,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손실 발생이 우려
- 전쟁이 원인이나 이것을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건설사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추후 관련한 소송 가능성도 높은 상황
  - 글로벌 건설 전문지인 MEED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상 차질로 보인다는 업계 시각을 보도

## ■ 고유가는 중장기 측면에서 전력 및 용수 분야 수주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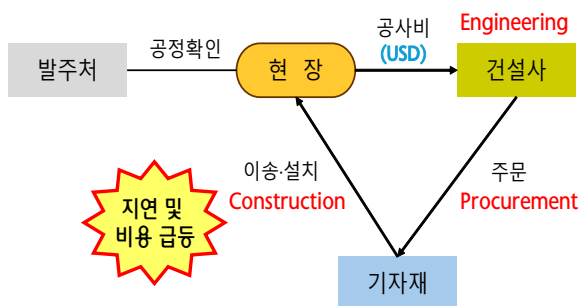
- 한편, 두바이유 가격 상승 이후 중동 건설 수주가 늘었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의 고유가 및 확전에 따른 피해 복구로 국내 건설사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
  - '00년 이후 두바이 유가와 중동 건설 수주와의 상관계수는 0.683
- 다만, 현시점에서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훼손된 공급망이 회복된 이후에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발주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전쟁 비용의 전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 고유가가 산유국에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
- 장기적으로는 역내 정치 불안에 따른 국방 및 안보분야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전력(망), 용수 분야 등 전략적 인프라의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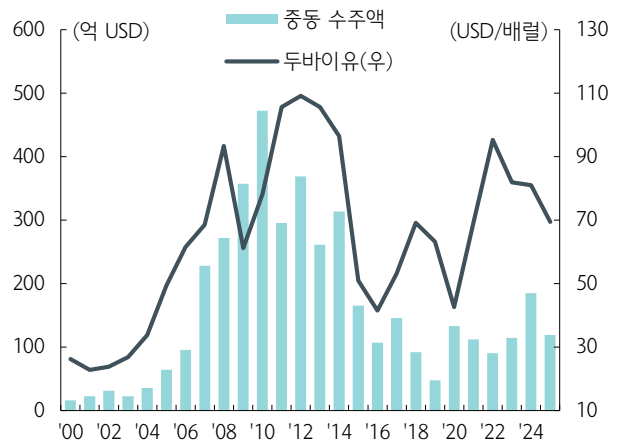
그림5 | 미국-이란 충돌 장기화에 따른 중동 건설 취약점



자료 :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하나금융연구소

1) 턴키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란 설계, 조달, 시공 중심의 건설계약으로 발주 금액이 계약 시점에서 고정된 경우가 대다수

그림6 | 두바이유 가격과 중동 건설 수주액



자료 : 국토교통부, Value-Search

## H50. 해운

### 중동 사태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보다 원유 공급망 불안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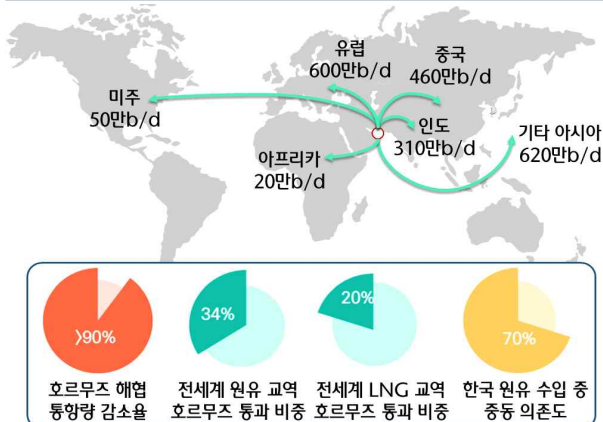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 Summary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해당 지역의 선박 통항량은 평시 대비 약 95% 감소하며 글로벌 에너지 수급 차질 발생. 호르무즈 해협 마비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해상운임이 급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보험료 상승과 계약 이행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해운사는 운임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아울러 홍해사태와 달리 우회항로 확보가 어려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중동 정세 변동에 따른 공급망 정상화 여부를 주목할 필요

####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선박 통항 차질로 해상운임 및 유가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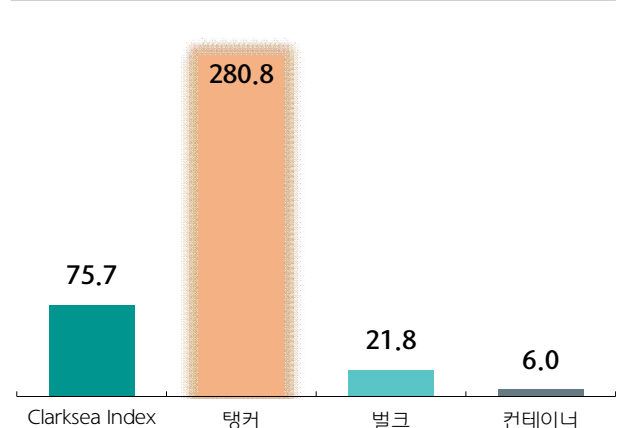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2.28)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량은 평시 대비 90% 이상 급감하며 에너지 수급 차질 발생
  -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34%와 LNG의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초크포인트(Choke Point)로 이란의 봉쇄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수급 차질 발생
  - '26년 3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총 선박수는 공습 이전 대비 94.5% 감소한 197척이며, 같은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원유 해상 물동량은 98.0% 감소한 247만DWT을 기록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해상운임·보험료·연료비 등이 동반 상승하며 해상운송 비용 충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동산 에너지의 대체 조달 수요가 서아프리카, 미주 등 장거리 항로로 이동할 경우 선박 부족 및 운임 상승 압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
  - 연료비 부담 확대에 따라 선사들은 저속운항으로 대응하면서 실질 선박 감소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 항로 운항에 따른 운항거리 증가 역시 선박 공급 감소요인으로 작용
  - 3월 31일 유가는 교전 이전(2.27) 대비 WTI 56%, 브렌트유 49%, 두바이유 53%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LNG 가격은 TTF 50%, JKM 88% 상승, 선박 연료(HSFO 380)는 84% 상승

그림 7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 수출량('25년 기준)



자료 : IEA,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림 8 | '25년 평균 대비 '26.3월 선종별 운임지수 (%)



자료 :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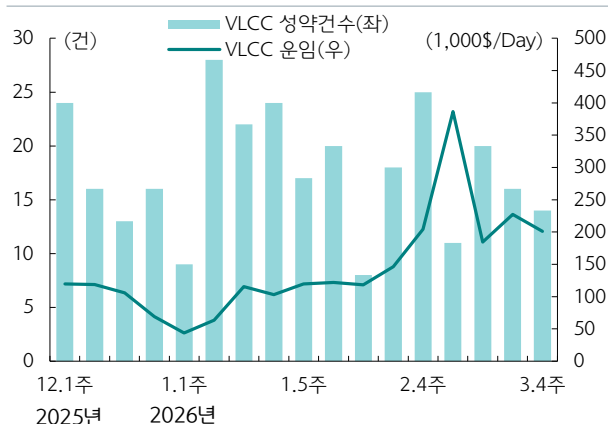
## ■ 운임 상승 수혜보다는 우회항로 확보 어려움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

- 해운사들은 보험료·연료비 상승에 의한 운항 비용 증가와 선적 물량 감소로 인해 운임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존 선적 물량에 대한 계약 이행 불확실성도 심화
  - 일부 선사는 중동으로 향하던 화물을 예정 목적지가 아닌 다른 항만에 하역할 수 있도록 하는 '항해 종료 조항(end-of-voyage)'을 발동하면서 중동向 화물을 대체 항만에서 하역
- 원유선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마비에 따라 중동 산유국들의 4월 선적 일정 확정이 지연되면서 성약 활동이 위축되어 중동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VLCC의 3월 4주 운임은 하락세 전환
  - VLCC 운임은 공습 직후 전주 대비 89% 급등하였으나 봉쇄에 따른 선적 계약 위축으로 재차 하락
- 한편, 금번 사태는 희망봉으로 우회했던 홍해 사태와 달리 원유 산지와 직결된 지역이므로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어렵고 대체 항만으로 파이프라인 운송도 필요하여 공급망 불안이 가중
  -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 오만 소하르(Sohar), UAE 코르파칸(Khor Fakkan), 사우디 제다(Jeddah) 등 대체 항만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홍해 역시 지정학적 위험 지속으로 인해 안정성이 취약

## ■ 단기적으로는 비용 충격, 중기적으로는 원유 공급망 정상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공급망 관점에서 컨테이너선은 중동 물량이 1%에 그쳐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원유를 수송하는 탱커 선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겠으며, 비용 관점에서는 연료비 상승이 전 선종에 악영향
- 전쟁 장기화로 홍해 상선을 피격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도 참전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대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심화될 우려
  - 바브엘만데브 해협마저 봉쇄될 경우 중동의 원유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하며, 이 경우 운항 거리가 기존 항로보다 약 9000km 늘어나고 운송기간도 최대 2주이상 길어져 중동에서 국내까지 약 50일이 소요
- 한편, 이란 대통령의 조건부 종전 의사 표명(3.31)과 트럼프의 2~3주 내 병렬 철수 언급(3.31) 등을 고려시 사태 완화 가능성도 존재하나 중동 항로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
  - 단, 종전(휴전) 협상이 체결될 경우 글로벌 원유 수급난은 완화되겠지만 사태 진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원유 운송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림9 | VLCC 성약건수 및 운임 추이



자료 : Clarkson

그림10 | 중동 원유 수송 경로



자료 : 언론종합, 하나금융연구소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mailto: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